# "신해양·문화관광수도 전남 건설"

## 민주당 김영록 후보

###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추진
###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국립의과대학 설립
### 남도관광벨트 구축해 광주와 함께 성장

"앞으로의 4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전남의 미래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2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발전은 한 순간에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연속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수도 전남'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남과 전북·광주·제주,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첨단 산업을 공동 유치해 한 뿌리인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민들이 김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지난 4년간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매월 발표되는 주민생활만족도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지지도 조사 결과, 30회에 걸쳐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도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면에서도 목표대비 112%를 달성했다. 도민들이 일 잘하는 도지사,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로 인정해 주신 결과로 생각한다. 믿고 한 번 더 선택해 달라. 그동안 이루지 못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해 나가겠다.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건설하겠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

**-전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국립의과대학을 전남에 설립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의정협의체가 미뤄지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늦어졌지만, 공공의료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의료환경이 열악하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때 만나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설명했다. 당시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 설립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었다.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50~60대가 고향에 자리잡고, 20~30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다. 반드시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전남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을 건설하겠다. 우선, 전남·전북·광주·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남해안 소재산업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전남·전북·제주의 RE100 재생에너지산업벨트 등을 함께 구축하겠다. 한 뿌리인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앞장서겠다.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을 공동으로 유치해 호남권 발전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광주 광산구와 장성군 일대에 1000만㎡(300만평) 규모로 조성, 자동차와 전력반도체 등으로 특화된 차세대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대를 기반으로 전남 100년, 대한민국의 발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대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이 환태평양시대 관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전선 고속철 조기완공 등 SOC 르네상스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새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은.**

▲호남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현안과 핵심사업을 반영시켜 나가겠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 및 농림부장관 재임시절 만난 여야 주요 인사 및 기재부 등 핵심 공직자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끈끈하고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나 전남의대 설립과 해상풍력국정과제 등 전남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모아 지역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광주와 상생발전 전략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국가 현안이다.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광주시도 전남도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역·주민 간 갈등만 심해질 뿐으로, 이전 대상지 주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국가 지원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등도 시급한 문제다. 전남도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 마련을 건의했었다. 이외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전주~광주~나주~목포~순천~여수로 이어지는 남도관광벨트도 구축해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대책은.**

▲인구 문제는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도 관건이다. 전남도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78억원, 내년 505억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원을 확보했고 전남형 지방소멸대응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탈정치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다"

##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 도지사 바꿔야 전남 변화·발전 기대
### 일자리 만들기 7대 복합단지 조성 공약
### 미래전략실 만들어 초장기 미래 설계

"한 번만 변화를 선택해달라. 민주당 27년과 다르게 전남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는 2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차와 이차전지, 예방 및 치료 백신, 군사용 드론, 레저·스포츠와 해양관광, 산업으로서의 과학과 기술농업의 연구·개발·생산 복합단지를 유치, 조성하겠다"는 전남의 미래 발전 전략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힘 불모지인 전남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섰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쉬운 선거를 해 본 적이 없다. 출마 결정이 어려운 적도 없었다. 진심이면 통한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묻지마 투표, 하나마나 한 선거는 한 쪽 후보가 약했을 때의 현상이다. 민주당 27년과 다르게 전남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다. 전남에서 선거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탈이념, 탈정당, 탈네거티브에 외부 지원 유세 요청도 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함께 했던 27년과는 다른 철학, 다른 추진력, 다른 지원과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전남 발전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출마 선언할 때 "지역의 논점을 정치적인 전남에서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무슨 의미인가.**

▲민주당의 전남 지사 독점 27년 동안 농도인 전남에 대규모 농기계 공단, 농·수·축산물 가공공단 하나 끌어 오지 못했다. 농약, 씨앗 연구소 하나 변변한 게 없다. 당연히 취직할 곳이 없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그래서 전남은 소멸 가능성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 도민이 가장 바라고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가 만병통치약이다. 언제까지 도민들의 일자리 대신 중앙 정치 종속만 자처하고 있을텐가.

**-매일 전남 동·서부·중부 등을 오가는 강행군 유세를 하고 있다. 지역마다 민심의 향배가 다를 것 같은데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 유세라는 말을 들었다. 유세하는 동안 차에서 김밥을 먹으며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매일 7~14개 시·군을 넘나들며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차가운 얼음장 같은 느낌을 받는 곳이 있고 봄 햇살 같은 따스함을 느끼는 곳도 있다. 당에서도 호남 사람이라고 해서, 고향에서는 보수당 소속이라고 해서 하도 많은 서러움을 받았다. 그래서 민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직하게 다니고 있다.

**-전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째는 27년간 이어져온 민주당에 의한 도정교체로, 도지사를 바꾸는 것이다. 27년 해도 못한 전남 발전이 4년을 더해 31년을 한다고 달라질 리 없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소외를 넘어 소멸지경에 이르게 한 도지사를 바꾸지 않고는 어떤 발전과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다. 둘째는 일자리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공부하고 직장을 잡아 일하는 게 힘들지 않은 전남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복합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첨단의료산업 복합단지·농수축산업 복합단지·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 복합단지·부품 소재 산업 복합 단지·항공우주 방위산업 복합단지·케어산업 복합단지 조성 계획 등이다.

**-전남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말해 달라.**

▲우선, 신산업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미래 차와 이차전지, 예방 백신뿐 아니라 치료 백신과 세포치료제 개발 및 생산 거점화, 고흥 항공우주 산업과 군사용 드론 개발 연구소, 서남해안 지역 관광·휴양벨트 구축, 풍부한 천연 농·수산 및 해양 자원을 활용한 농·수·축산업 복합단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로 미래전략실을 만들겠다. 100대 기업과 중앙 부처 그리고 해외 투자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과 정부 연구 기관 그리고 국제투자 자금을 전남에 유치하겠다. 세째, 전남의 현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초장기, 초광역, 초일류적 미래 설계를 하겠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는데.**

▲첫째로 정부와 전남도가 지역소멸 자체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 개조 차원의 혁명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대기업과 국가 연구기관 및 실험시설을 적극 유치해 연관 산업 발전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통한 서비스 분야 젊은이들 일자리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도 특성에 맞게 스마트 팜 등 첨단 과학 기술 농·수·축산업과 가공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떠나는 전남에서 돌아와 머무는 전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등 호남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광주 전남 출신 인재 리스트를 꼼꼼히 챙겨 대통령께 전달하겠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해 강력하게 반영을 촉구하겠다. '자로 몇 센티고 저울로 몇 근이면 엘리트인가' 묻고 싶다. 임진왜란 때 엘리트들은 임금 모시고 피난부터 갔지만 전쟁을 끝낸 사람들은 전남 사람들이었다. 자기 탯줄을 자기가 골라 태어난 사람은 없다. 지역 차별인사는 인권 유린이다. 호남 소외는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행태를 보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성의가 있는지, 의지는 있는 지 의문이다. 군 공항,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어등산과 화원 및 경도 개발, 아시아 문화 전당 활성화, 새만금, F1 경기장과 여수 엑스포 부지 활용도 방치 그 자체다.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대통령과 국방부, 혹은 유관부처와 100차례, 아니 200차례도 만나 끝장을 보겠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만든 규정이라면 사람이 못 풀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중앙부처 핑계만 대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 일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